



Anne Vichen



Their interaction created a way of life in this little corner of

Paris, a community where people feel a "joie de vivre".



이 작업을 제기로 그는 사물로 50번가에 있던 그의 첫 집에서 새로운 공간인 파리 75003 포레(Pareo) 1번가로 이동한다. 이러한 여한 지붕 아래에 알리앵(Alisont, 자연주의 레스토랑과 두드(Doux Me, 자연주의 뷰티케어숍) 그리고 엘 키오스코가 함께 어우러진 창조적인 컨셉트 공간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플라워 아티스트인인 비첸이 옥바미오의 쇼룸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는 자연스러운 인력함을 느꼈다. 그녀는 곧 그의 뒤를 이어 플라워 디자인 컨셉트 공간인 엘 시스코 드 플로레(El Cisco de Flore)를 만들게 된다. 이런 아티스트들의 상호 작용은 파리의 한 골목, 이 작은 코너에서 색다른 삶의 방법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삶의 기쁨(joie de vivre)' 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을 아르헨티나인보다 아르헨티나인답다고 말하는 안은 아르헨티나 남자와 결혼했고, 남편과 사별한 뒤에는 상업 잡지의 디렉터와 코디네이터 일을 접고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찾게 이른다. 조영기가에 대한 열정 그리고 5년 동안 호화 호텔과 리스텐 디오르, 루이비통 등의 패션 디자이너와 브리스를 호텔이 많은 8번가에서 플라워숍을 경영했던 경험은 그녀에게 꽃꽂이가 단순히 꽃꽂이 아니라 디제이닝이나 패션의 한 부분이라는 색다른 접근 방식을 일깨워주었다. 단골 고객을 위해 독창적인 영감을 창조하고 싶어 했던 그녀는 결국 '꽃꽂이(flower arrangement)'의 노래하는 시인이 되었다.

그녀는 최근 파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한 인도의 결혼식을 맡았다. 결혼식장 전체를 난롯으로 꾸민 900m 길이의 화환으로 장식했는데, 그녀가 만든 꽃 한 송이는 가격은 5유로(약 6,500원)에서 자그마치 5만 유로(약 6,500만 원)인 것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작품이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조각을 선사하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그녀가 꽃으로 만든 작품 외에도 향기 나는 양초와 신선한 꽃으로 만든 자연 비누, 꽃병까지 만드는 이유다.